

'92 한국 자동제어 학술회의를 끝내고

양 해 원

(한양대 공대 전기공학과 부교수)

지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한국 종합 전시장에서 '92년도 한국 자동제어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학술회의의 준비위원회의 한사람으로 그 동안의 준비과정 및 학술회의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하므로서 회원들에게 학술회의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개최를 맡게 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1. 준비과정

'92년의 한국 자동제어 학술회의가 개최되기 며칠 전 이번에는 전자분야에서 학회를 주최하는 차례가 되어 한양대학교가 주관기관이 되었으며 갑자기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92년도 학술회의에 참가하면서 이렇게 큰 행사를 어떻게 치루어 낼 것인지 걱정이 태산 같았다. 더구나 준비위원회의 구성원 중 한양대에 재직중인 교수들이 서울과 안산의 두 캠퍼스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업무진행 및 협조에 어려움이 있었다.

금년 3월말경에 call for paper를 우송하고 5월말까지 논문의 abstract를 접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본에서 보내오는 논문들을 일본 계측 자동제어 학회에서 모아 일괄적으로 보낸 것이 6월 하순에 도착하게 되므로서 그 후의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생겼다.

차일 피일 미루다가 abstract받은 것에 대한 답신도 보내지 못한 채 7월말에 간신히 advance

program을 만들어 mat와 함께 보내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따라서 논문제출하신 많은 분들이 abstract에 대한 답신이 없는 것에 대하여 궁급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한편 8월말까지 논문접수를 마감할 예정이었지만 9월 들어서도 논문이 계속 접수되어 인쇄소에 논문 원고를 보내기 직전인 9월 25일 경까지 논문을 접수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인쇄하는 데 시일이 촉박하게 되었다.

금년에는 일본 등 외국에서 다섯분, 국내에서 네분에게 표1과 같이 특별강연을 부탁하여 회원들에게 최근의 연구동향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분들에게서 여러사정으로 논문이 제때에 입수되지 못하여 결국 몇 논문은 논문집에 게재할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또한 총회에서 guest speaker로서 산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윤 종영 사장님이 "전자산업의 생산기술"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제어관련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Sweden의 K.J. Astrom교수님이 "Intelligent Control"에 대하여 강연하여 주신데 대하여 준비위원회의 한사람으로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한다.

준비위원회에서 제일 우려했던 것은 혹시 적자나 나지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산업계에서 많은 협조를 약속하였으나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하여 협조금액도 예년보다 많지 않았고 만일 미수금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했었다. 따라서 적자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책으로 등록비를 대폭 인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표 1. 특별강연 제목 및 연사

구분 SPECIAL	제 목	연 사	소 속
SPECIAL LECTURE 1	Orthogonalization Principle for Hybrid Control of Robot Arms Under Geometric Endpoint Constraint	Suguru Arimoto	University of Tokyo
SPECIAL LECTURE 2	Chain-Scattering Approach to H_∞ Control	H. Kimura	Osaka University
SPECIAL LECTURE 3	Analysis of Robustness in Fuzzy Control	Hung T. Nguyen	New Mexico state University
SPECIAL LECTURE 4	Application of Neural Network in Manufacturing Process Monitoring and Control	Cho H. S.	KAIST
SPECIAL LECTURE 5	Future Trends in Multisensor Integration and Fusion	Ren C. Luo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SPECIAL LECTURE 6	Advances and Current Problems in Process Control	W.K. Lee	
SPECIAL LECTURE 7	Design of Fuzzy Logic Controller Based on Conflict-Inconsistent Rules	Bien Zeung-Nam	KAIST
SPECIAL LECTURE 8	Motion Control in Mechatronics Devices	Nobuhiro Kyura	Yaskawa Electric Co.
SPECIAL LECTURE 9	Receding Horizon Predictive Controls and Generalized Predictive Controls with their Equivalence and Stability	Kwon W.H.	Seoul National University

또하나 걱정했던 것은 좌장을 의뢰받은 분들이 사정에 의하여 말을 수 없게 된 것을 final program에서 조정하면서 승낙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좌장을 부탁드리게 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새롭게 부탁받은 분들에게 사정이 있어서 못오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했다.

2. 학술회의 진행

10월 19일의 아침이 밝았다. 아침 7시 30분에 회의장에 도착하니 자원학생들이 등록준비와 전시회사의 준비를 돕느라고 몹시 바쁜 모습이였다. 8시 30분경 Astrom 교수님이 오셔서 강연준비를 확인하셨다. 이와같이 모든 일에 철저하므로서 유명하게 되었으리라고 생각되었다. laser pointer를 요구하였으

나 회의장에 준비된 것이 없어서 연세대 박 민용 교수가 자택에 있는 것을 갖고 오셨다.

우려했던 대로 첫날부터 좌장이 도착하지 못하여 후보좌장으로 대처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등록비가 워낙 많이 인상된 탓인지 참가자도 예년보다 줄어 보였고 발표장 안에도 청중들이 그다지 많지 않아 아쉬운 감이 있었다.

둘째 날에도 학술회의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였다. Waseda대학에서 온 内田교수가 그날 아침 호텔에서 식사도중 잠깐 자리비운 사이에 여권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도난당한 것이다. 따라서 그날 학술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다음날의 좌장까지도 못하게 되었다고 잘 부탁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인으로서 부끄러워 한마디 대꾸할 말이 없었다. 저녁의

리셉션은 52층에서 부폐형식으로 진행되었고 Astrom교수를 비롯하여 일본제어관련학회의 회장 혹은 부회장도 참석하여 짙막한 speech를 곁들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내외국인이 섞여 앉아 담소를 즐기면서 특히 한일간의 우의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날은 참가자 수가 더욱 줄어 회의장이 쓸렁한 분위기이었으나 별 탈없이 끝난 것은 다행이었다.

3. 학술회의를 끝내고

평생 처음으로 이와같이 커다란 행사준비에 참여하여 무사히 끝내고나니 배운 점도 많았고 아쉬운 점도 많았다. 아래는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기로 한다.

1) 300편 가까운 논문이 제출되고 있으므로 이제는 학술회의 발표에도 심사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여태까지는 심사는 커녕 무리하게 논문제출을 권하는 형편이었지만 앞으로는 심사제도를 채택하여 수준을 높이고 규모를 줄이므로서 회의경비도 절감하고 깊이있는 토론의 장으로서의 학술회의가 되도록 하여야겠다.

2) 위와 같은 심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을 충분히 잡고 늦어도 6개월 전에 full paper를 제출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1년은 최대한 활용되어야 한다.

3) 등록비 인상으로 많은 분들에게서 항의를 받았지만 만일 학술회의에 참가하여 동료 연구자들의 현재의 연구현황을 파악하고 충실한 토론이 가능하게 된다면 고액의 등록비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일본에서의 참가자 및 논문도 상당히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이번 준비위원회는 주로 대학과 국책연구소에

재직 중인 분들로 구성되었고 산업계에서는 한분도 참여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산업계에서 활약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므로써 산업계의 참가자 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산학 간의 교류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5) 여기서 이번 학술회의가 무사히 진행되도록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재정적 도움을 준 19개 업체와 외국연사의 초빙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서울대의 제어계측 신기술연구센터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시에 기꺼이 참여하신 10개 업체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장에서 갑작스런 좌장 부탁에 응해주신 많은 분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양대 전자과 대학원학생 이문수씨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고마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양해원 (梁海元)

1950년 3월 20일생. 1971년 서울대 공대 전기공학과 졸업. 1973년 동 대학원 전기공학과 졸업(석사). 1982년 일본 경도대 대학원 전기공학과 졸업(공학박). 현재 한양대 공대 전기공학과 부교수, 당학회 편집이사.